

아프리카의 ICT 인프라 현황 및 시사점

장종문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연구원 (jmjang@kiep.go.kr, Tel: 3460-1225)



차 례 ●●●

1. 문제제기
2. 아프리카의 ICT 인프라 구축 현황
3. 아프리카의 ICT 인프라 구축 효과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최근 아프리카의 대용량 해저케이블망 건설이 연이어 완료되고,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동지역 ICT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미 대륙 동부의 국가들을 연결하는 Seacom과 EASSy이 완료되었고, 서부지역을 잇는 WACS, ACE 등의 해저케이블 구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인터넷/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 완료단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아프리카 지역의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보급되어 현재 지역인구의 60% 이상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 기초적인 유·무선 통신인프라의 보급은 아프리카 지역의 ICT산업을 발전시키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음.
- 그동안 ICT산업이 발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높은 서비스 요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세네갈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ICT산업이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부상하였음.
- 아프리카 ICT 분야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외기업들의 현지시장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음.
- ▶ 한국의 경우 국내 ICT 대기업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이 관찰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원조사업의 성격을 띤 초기단계의 협력관계에 머물러 있음.
- 한·아프리카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조차원의 관심도 중요하나 지속가능하고 호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교류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

1. 문제제기

-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견고한 경제성장세와 함께 ICT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격차 문제는 정보화 수준 자체가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음.
-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의 정보화 동향을 살펴보면 정보격차 문제 같은 빈곤문제의 고착화 차원이 아니라, ICT 분야 신(新)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음.
- ICT 분야는 우리나라가 수출경쟁력을 가진 분야 중에 하나로 아프리카의 ICT 시장동향은 새로운 전략시장 발굴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표 1. 한국의 IT산업 및 전체 산업 수출입 실적

(단위: 전년대비 억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IT 비중(%)	연간	IT 비중(%)	연간	IT 비중(%)
수출	전체	4,664	33.0	5,552	28.2	5,482	28.3
	IT	1,539		1,566		1,552	
수입	전체	4,252	17.8	5,244	15.5	5,195	14.9
	IT	756		815		779	
수지	전체	412	190.2	308	243.8	286	270.2
	IT	783		751		773	

자료: 한국무역협회통계, 산업자원통상부(구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재구성

- 우리나라 IT산업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1]에서와 같이 2010년 약 33% 수준에서 2012년 28% 수준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무역수지 기준으로 보면 IT 산업이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비중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ICT산업의 수출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아일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 미국의 약 1.5배에서 2배 수준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¹⁾

- 본고에서는 최근 아프리카지역의 ICT 인프라 구축현황 및 주요 기업의 진출동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전략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평가하여 아프리카 ICT 시장진출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를 둠.

1) OECD(2011),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p. 90.

2. 아프리카의 ICT 인프라 구축 현황

가. ICT 해저케이블망의 구축 현황

- 아프리카 지역에서 2010년 7월 운영을 시작한 EASSy(East Africa Submarine System)에 이어 2011년 WACS(West Africa Cable System), 2012년 ACE(Africa Coast to Europe) 등의 대용량 해저케이블망 건설이 연이어 완료됨에 따라 동 지역 ICT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표 2. 아프리카 주요 해저케이블 건설 현황

	Seacom	EASSy	WACS	GLO1	ACE	SAex	WASACE	BRICS
건설비용 (백만 달러)	650	265	600	800	700	500	—	—
길이(km)	13,700	10,000	14,000	9,500	14,000	9,000	9,000	34,000
전송속도	1.28 Tb/s	4.72 Tb/s	5.12 Tb/s	2.5 Tb/s	5.12 Tb/s	12.8 Tb/s	40 Tb/s	12.8 Tb/s
건설완공 (예정)일	2009년 완공	2010년 완공	2011년 완공	2010년 완공	2012년 상반기 완공	2013년 상반기중 완공예정	2014년 완공예정	2014년 완공예정

주: Tb/s는 1초간 1조 비트의 정보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두 통신 지점 간이나 네트워크 장비에서 1초당 전송되는 정보량을 측정할 때 사용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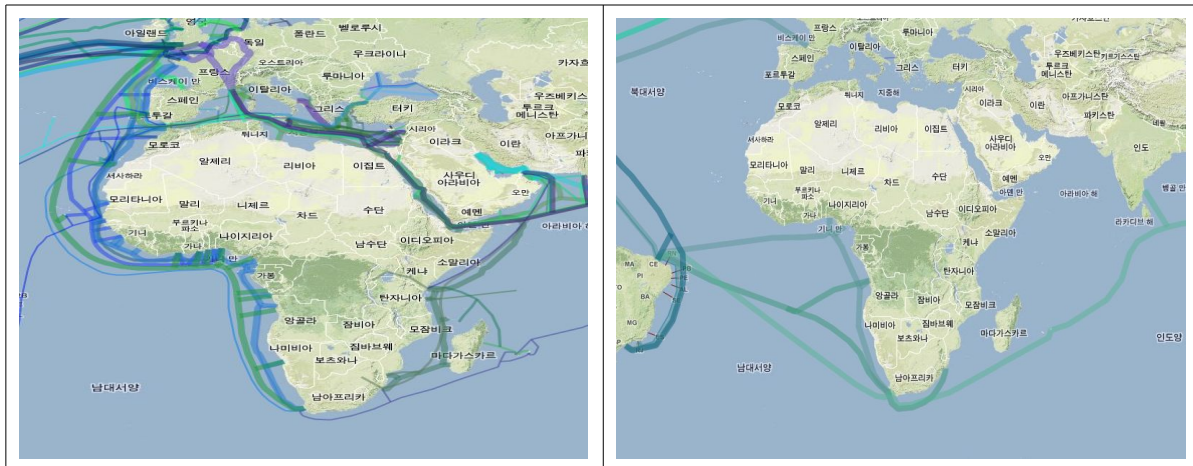
자료: Seacom 홈페이지(<http://www.seacom.mu>, 최종접속일: 2013. 5), EASSy 홈페이지(<http://www.eassy.org>, 최종접속일: 2013. 5), <http://manypossibilities.net/african-undersea-cables>(최종접속일: 2013. 5) 참조 재구성.

- 아프리카 지역의 ICT 인프라는 그동안 마이크로웨이브 기반의 모바일 통신에 치중하여 기초적인 유선네트워크 기반 인터넷 브로드밴드 분야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이로 인한 과도한 인터넷 요금문제 등이 한 계로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고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등의 역외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해저케이블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고, 최근에는 수십 Tb/s 대용량 대륙간 케이블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²⁾

2) ITU, UNESCO(2011), “Broadband: A Platform for Progress, A report by the Broadband Commission for Digital Development,” p. 155.

- 아프리카 지역의 해저케이블은 최초 대륙 동부의 국가들을 연결하는 Seacom과 EASSy³⁾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서부아프리카 국가들을 연결하는 케이블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서아프리카 연안국가들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해저케이블은 WACS(West Africa Cable System)와 2012년 완공된 ACE(Africa Coast to Europe)를 들 수 있는데, WACS가 남아공과 영국계 자본을 중심으로 추진된 반면 ACE는 프랑스계 통신사와 각국의 현지자본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음.
 - WACS의 경우 남아공의 Telkom, Vodacom, MTN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으나, 영국 최대의 통신사인 Vodafone Group이 이들 남아공회사들과 지분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영국계 자본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임.
 - 2012년 새롭게 개통된 ACE의 경우 France Telecom과 Orange의 각국 자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적도기니, 카메룬, 나이지리아, 토고, 가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감비아, 세네갈, 모리타니아 등 다수의 서부연안 국가들을 거쳐 프랑스로 연결되어 있음.
- WACS, ACE 등 아프리카 서부 연안 국가들을 잇는 해저케이블 구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인터넷/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가 대륙의 동·서부 모두를 포함하는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수십 Tb/s급 대륙 간 네트워크 및 각 개별국가 차원의 유선 브로드밴드망 구축공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아프리카 해저케이블 구축 현황(좌: 현재 활성화된 네트워크, 우: 건설 중인 네트워크)



자료: <http://www.cablemap.info/>(최종접속일: 2013. 5).

3) Seacom은 남아공, 모잠비크, 탄자니아, 케냐 등의 연안국가에 육양점(landing point)을 두고 있으며, EASSy는 소말리아, 지부티, 수단 등 북쪽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유럽으로 연결됨. Seacom 홈페이지(<http://www.seacom.mu>, 최종접속일: 2013. 5), EASSy 홈페이지(<http://www.eassy.org>, 최종접속일: 2013. 5).

나. 이동통신 보급의 확대

■ ICT 네트워크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이동통신관련 네트워크라 할 수 있음.

- 아프리카 지역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2년 기준 약 5억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2년 연평균성장률도 약 28% 수준으로 중동지역의 2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2%를 상회하는 세계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동일한 맥락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그림 2]에서 보듯이 2005년 12.4명에서 2012년 59.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리비아(156명), 세이셸(146명), 보츠와나 (143명), 남아공(127명), 가봉 (117명) 등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EU 및 북미 국가들의 수준을 넘어선 비율을 보임(표 3 참고).

그림 2. 아프리카 이동통신, 유선전화 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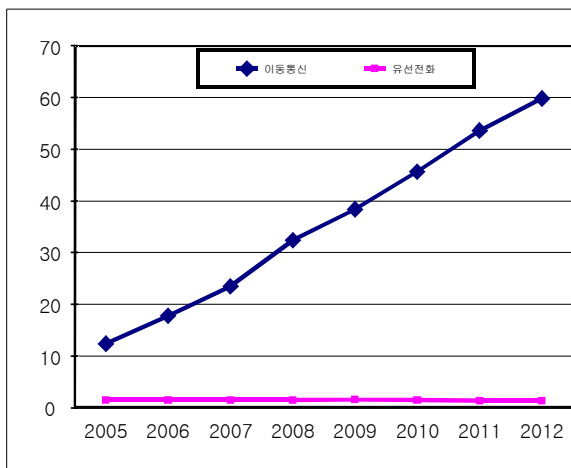


표 3. 아프리카 이동통신 보급률 상위 10개국

국가명	2010	2011
1. 리비아	171.52	155.70
2. 세이셸	135.91	145.71
3. 보츠와나	117.76	142.82
4. 남아공	100.48	126.83
5. 가봉	106.94	117.32
6. 튀니지	106.04	116.93
7. 모로코	100.10	113.26
8. 이집트	87.11	101.08
9. 모리셔스	91.67	99.04
10. 알제리	92.42	98.99

주: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서 이동통신 보급률이 100%를 훨씬 상회하는 가장 큰 이유로 특히 저개발국가들에게 많이 보급된 선불과금제도 (prepaid service)로 인해 선불폰으로 활용되는 저가폰의 보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 수 있음.

자료: ITU 2013, Key Global Telecom Indicators for the World Telecommunication Service Sector.

■ 그동안 아프리카의 이동통신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로 △ 아프리카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통신분야 민영화 정책과 △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유선브로드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거론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전파는 공공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시장의 외국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자국의 공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해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을 시도하고 있음.

표 4. 아프리카 주요국의 통신인프라분야 민간투자

국가명	통신분야 누적민간투자액 (1990~2010년, 백만 USD)	전체 민간 인프라투자에서 통신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남아공	25,855	79.1
나이지리아	21,403	80.5
모로코	11,053	53.2
케냐	5,093	81.8
탄자니아	2,727	79.7
우간다	2,231	59.5
콩고 민주공화국	1,575	100
부르키나 파소	1,021	93.7
베냉	911	60.7
말라위	713	95.2

자료: ITU(2013),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2*, pp. 156-157 재구성.

- [표 4]에서 보듯 남아공은 1990년에서 2010년까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약 260억 달러의 민간자본을 조달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체 민간 인프라투자에서 통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79.1% 수준으로 매우 높음.
- 또한 나이지리아, 케냐 등 다수의 국가에서 통신사업의 민영화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음.

■ 해외민간투자는 아프리카 통신 인프라 구축의 재정적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프리카 통신시장의 구조를 경쟁적으로 유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아프리카 ICT 인프라 분야의 해외민간투자자금 유입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등의 간접투자 방식이 아닌 그린필드 투자(Green Field Investment)⁴⁾와 같이 해외기업이 직접 현지에 투자하는 직접투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대체적으로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베냉,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인구 천만명 이하의 소규모 저개발 국가들이 주를 이루지만,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등 인구 4천만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국가들도 그린필드의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있음(표 5 참고).
- 이 같은 맥락에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통신인프라 시장을 개방하여 해외기업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해외기업들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형태의 투자를 통해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보임.

4) 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국외자본이 투자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그린필드 투자와 이미 설립된 현지 회사를 사들이는 브라운필드 투자로 나눌 수 있음.

표 5. 아프리카 통신 인프라 분야의 그린필드 민간투자 비중 상위 10개국

국가명	그린필드투자 비중 (1990~2010년 누적, %)	국가명	그린필드투자 비중 (1990~2010년 누적, %)
1. 콩고민주공화국	100	6. 브룬디	100
2. 베냉	100	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00
3. 말라위	100	8. 나이지리아	96.5
4. 시에라리온	100	9. 탄자니아	93.1
5. 라이베리아	100	10. 마다가스카르	91.1

자료: ITU(2013),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2*, p. 157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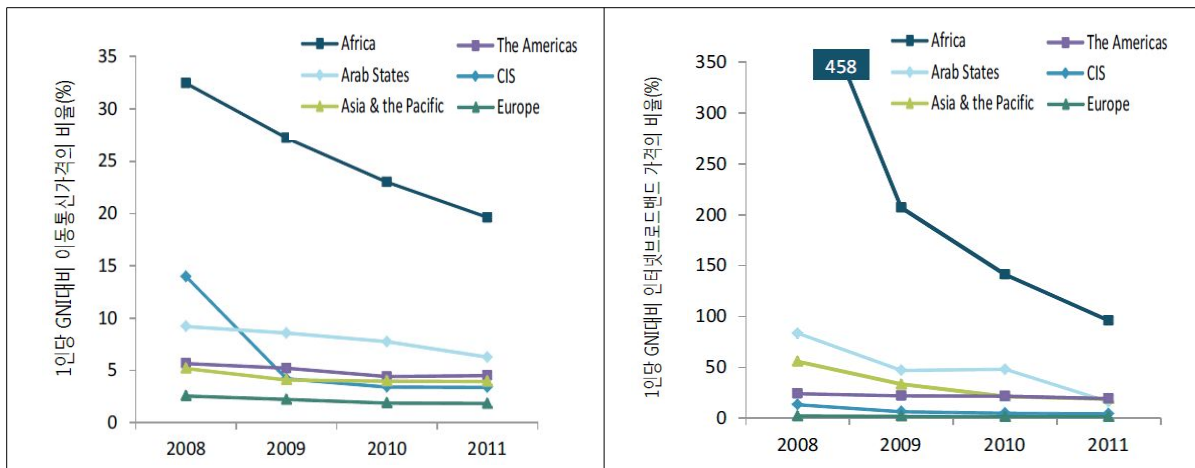
- 실제로 아프리카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이미 Vodafone, France Telecom 등 다수의 유럽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의 Bharti Airtel 등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어 해외 기업들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3. 아프리카의 ICT 인프라 구축 효과

가. 통신요금의 하락

- 그동안 아프리카 지역의 높은 통신요금 문제는 이 지역의 정보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최근 통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통신요금 문제가 급격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아프리카 유선브로드밴드(인터넷) 시장의 가격수준은 2008년 기준 지역소득의 4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100% 수준으로 급감함.

그림 3. 세계 이동통신, 인터넷브로드밴드 서비스 가격 추이



자료: ITU(2013),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2*, p. 92.

■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별 가격하락효과는 소득그룹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인당 GNI가 5,000달러 이상인 남아공, 모리셔스, 세이셸, 보츠와나 등의 국가들은 이미 인터넷 브로드밴드 요금 수준이 전체 GNI의 2%에서 5% 수준으로 지역 평균 100%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임.

■ 저렴한 통신요금은 ICT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로 최근 통신가격이 하락하면서 ICT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음.

- 세네갈, 케냐, 모로코, 남아공, 우간다 등은 세계에서 GDP 대비 통신 분야의 매출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국에 속할 정도로 통신시장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임.

○ 일례로 케냐의 경우 성인의 68%가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모바일 화폐 이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음.⁵⁾

그림 4. 세계 GDP 대비 통신 분야
매출 상위 1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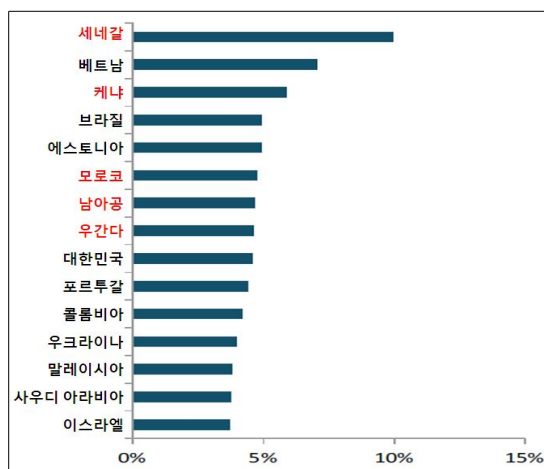


표 6.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이동통신 매출 상위국가

국가명	2007년 (현지화폐)	2008년 (현지화폐)	2009년 (현지화폐)	2010년	
				(현지화폐)	(백만 USD)
남아공	73,630	81,882	87,324	90,562	12,370
나이지리아	613,808	768,671	891,945	950,400	6,323
세네갈	282,000	336,000	327,000	346,000	699

자료: ITU(2013),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2*, p.138(좌); ITU(2013),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2*, p. 140(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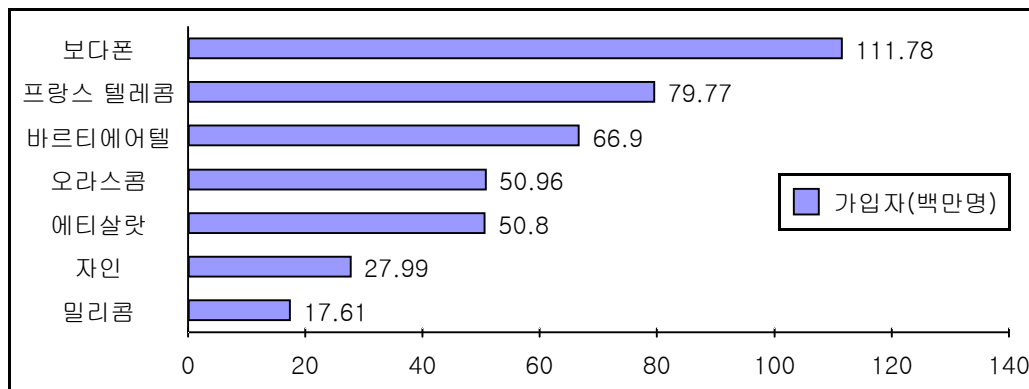
- 또한 남아공의 모바일통신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120억 달러 규모로 세계 15위 수준이고,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도 60억 달러 수준을 나타내는 등 이미 세계시장에서 의미 있는 비중으로 성장하고 있음(표 6 참고).

5) Demircuc-Kunt and Klapper(2012), "Financial Inclusion in Africa: An Overview," p. 10.

나. 해외기업의 진출 가속화

-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ICT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높임에 따라 동지역의 정보화 수준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는 등 ICT 분야 신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경향이 관찰됨.
- 이미 이동통신 시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해외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있으나 최근에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등 ICT 장비, 소프트웨어 등 전 분야에 걸쳐 유명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해외기업들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이동통신 분야로 이미 영국과 프랑스 자본의 다수의 통신기업들은 물론 남아공 같은 국가들의 현지 기업, 쿠웨이트, 인도 등의 신흥경제국의 통신사들까지 참여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프랑스의 프랑스 텔레콤(France Telecom)은 오랑주(ORANGE)라는 브랜드로 케냐, 세네갈,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등 약 18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영국의 보다폰(Vodafone)은 사하라이남의 가장 큰 시장인 남아공을 비롯한 7개 국가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함.
- 최근 아프리카 이동통신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인도의 Bharti Airtel의 Zain Africa 인수라 할 수 있음.
- Zain Africa는 쿠웨이트 자본이 중심이 된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로 2010년 6월 Bharti Airtel에 인수되기 전 아프리카 지역의 약 15개국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음.
- 위의 M&A 계약으로 인해 인도의 Bharti Airtel은 단숨에 아프리카 지역 3대 사업자로 부상하였고, 이동통신 시장은 더욱 경쟁적으로 재편되고 있음

그림 5. 아프리카 이동통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기업의 경쟁상황(가입자 수 기준)



자료: Gemma Ware(2012), "Few homegrown survivors," THE AFRICA REPORT, No. 45, p. 88 참고.

- 아프리카의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주요한 이유로 △ 현지기업의 부재와 △각국 정부의 제한된 재정상황에 따른 외국자본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 △ 정부의 규제력이 제한되어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 △ 동지역 이동통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KT가 2012년 남아공의 텔콤(Telkom)과 올초 모로코의 마록텔레콤(Maroc Telecom)의 지분인수경쟁에 참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임.⁶⁾
- 이동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ICT 장비 및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IBM을 비롯해 MS, 구글 등 세계주요 ICT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의 KT, 삼성전자 등도 아프리카 진출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⁷⁾
- IBM은 가장 공격적으로 아프리카 ICT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2012년 5월 세네갈 다카르에 지사를 세우고, 이어 8월에는 케냐 나이로비에 IBM 연구소를 세우는 등 현재까지 약 아프리카 20여개국에 진출해 있음.
- MS 역시 아프리카 14개국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고, 올 2월 자사의 모바일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중국 제조사인 화웨이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출시하였음.
- 이 지역의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들의 경우 삼성전자, KT 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ICT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력교류사업, ICT 공공서비스사업 등의 원조사업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호응 및 시장 이미지 형성에 주력하고 있음.⁸⁾
- 한국의 ICT 역량이 새로운 협력관계를 창출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국가로 르완다를 들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상외교 및 KOICA를 중심으로 한 개발원조사업, 건국대, 영남대 등의 인력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특히 한·르완다 협력관계는 민간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 삼성전자는 2012년 르완다 정부와 정보통신기술 분야 MOU를 체결하였고, KT 역시 2007년 와이브로 구축을 시작으로 2008년 국가 백본망, 2010년 전국 광케이블망, 2011년 매니지드 서비스(통신망 관리·컨설팅) 구축 등 다양한 ICT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올 3월 초에 르완다 정부와 4G LTE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합작회사인 JV를 설립한 바 있음.

4. 평가 및 시사점

- 아프리카 지역의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는 최근 국제대역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구축사업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기본적인 정보접근성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6) 서울경제(2012. 7. 13), 「KT, 2015년 글로벌 매출 4조원 시대 연다」 및 관련기사. KT 보도자료 참고.

7) The Economist(2013. 2. 16), "The next frontier: Technology companies have their eye on Africa."

8) KIEP 동향세미나자료(2013. 3. 19), 『주요 ICT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동향 및 시사점』.

- 케냐, 세네갈, 르완다 등 일부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ICT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ICT 인프라 구축의 성과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 전체 산업에서 IC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아프리카 ICT 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서 부상하고 해외의 주요 ICT 기업의 시장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성은 ICT 강국인 한국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해외 ICT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진출은 과거 아이디어 차원의 단순한 시장탐색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ICT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해외 주요 ICT 기업의 대아프리카 투자형태는 △ 직접적인 그린필드 투자뿐만 아니라 △ 인도의 Bharti Airtel 사례인 M&A △ IBM 같은 R&D 연구소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이 지역의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진출 사례가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원조성격의 사업이 중심이 된 초기단계의 협력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창조경제가 사고의 혁신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포함한다고 가정할 때,⁹⁾ 빈곤의 표상처럼 간주되는 전통적인 아프리카 관(觀)을 넘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기회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아프리카의 ICT 시장은 그동안 아이디어 차원에서 관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 최근에는 실체를 가진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아프리카의 ICT 산업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정부의 개입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의 진입장벽이 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그동안 아프리카의 ICT 시장은 영국과 프랑스 등 구식민종주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다 최근에는 미국, 중동, 인도, 중국계 기업들의 진출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구식민종주국의 시장지배력은 다소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됨. KIEP

9) 아주경제(2013. 5. 10), 「최문기 장관, 창조경제 실현 세계시장 도전할 때 가능」.